

---

第9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敎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7年5月6日(火) 午後2時

場所 文化敎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文化局所管業務報告의件
  2. 世宗文化會館所管業務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o報告事項 ... 2面

1. 文化局所管業務報告의件 ... 2面
  2. 世宗文化會館所管業務報告의件 ... 52面
-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劉大運;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사회 제1차 文化敎育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  
쪼록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금번 제94회 임사회  
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文化敎育委員會  
소관 분야의 의정활동이 알차고 뜻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專門委員會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  
다.

---

o報告事項

○專門委員室 金泰道; 文化敎育專門委員室 金泰道입니다.

우리 市議會 議長으로부터 우리 文化敎育委員會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22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7년 4월 29일 회부되어 있으며, 1997년 4월 9일 서울市敎育監으로부터 서울特別市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7년 4월 11일 회부되어 있고, 1997년 3월 12일 서울特別市 서대문구 연희3동 6-51 연희B지구 아파트 5동 310호에 거주하는 이성란 외 378명이 李康玉 議員 소개로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시 地方財政法施行令 제100조 제2항의 적극적인 적용청원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7년 3월 14일 회부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되어 있으며, 1997년 3월 21일 서울特別市 강서구 가양1동 1460-한강아파트 109동 1,101호에 거주하는 남경임 외 2,515명이 우리 위원회 盧永奭議員 님의 소개로 강서구 가양동에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7년 3월 24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市議會 議長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원 2건의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劉大運; 수고하셨습니다.

---

1. 文化局所管業務報告의件

(14時 07分)

○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1항 文化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文化局長 나오셔서 5월의 문화행사계획을 포함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평소 존경하는 劉大運 위원장님, 그리고 文化教育委員會 위원님 여러분, 가정과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립한 다양한 문화행사계획 이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文化局에서는 지난 3월 제93회 임시회 이후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운현궁 가례행사, LA서울종합홍보센터와 도교서울관의 개관 1주년 행사, 카이로 시와 자매결연 체결, 공원음악회 등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市가 21세기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각종 세부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문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맞기 위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시민의 생활문화 육성 지원 등 각종 문화발전시책을 마련, 추진해 나감에 있어 議會와 긴밀히 협력해 나감은 물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서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부임한 崔熙周 國際協力官입니다. 崔熙周 國際 協力官은 鍾路區 총무국장, 公務員敎育院 교수부장, 市政開發研究院 사무국장을 거쳐서 市 행정의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市의 국제교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21일 직제개편에 따라 발령된 禹大永 博物館長입니다. 종래 文化施設運營事業所가 市立博物館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文化施設運營事業所長에서 市立博物館長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文化施設運營事業所에서 관장하던 미술관 업무는 문화과에 미술관운영계가 신설되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文化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문화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준비된 업무보고는 마치고,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에 저도 처음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관광팀들이 觀光課長, 觀光係長 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시책으로서는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것 하나 보고를 못해 드려서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동안 한 4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에 대한 관광종합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피가 많고 이것을 다하려면 아무래도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전

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 보완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내용을 낭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뒤에 실음)

.....

총 56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한 사항은 13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사업으로서는 첫째, 다양한 관광자원 불거리 개발, 두 번째는 관광유치기반 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세 번째는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강화, 네 번째는 관광지원체제의 정비, 다섯 번째는 관광특화지구 조성 이런 5개 큰 항목으로서 부문별 추진계획을 죽 정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大運; 文化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化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精一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지금 局長님께서 새로 局長으로 취임을 하셔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市立博物館 전시유물 구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市立博物館을 신축을 해서 이름 그대로 우리 大韓民國 의수도 서울인 서울特別市の 市立博物館입니다.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유물을 확보해서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첫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유물 중에서 일부는 독지가들에 의한 기증을 하고 일부는 우리 시민의 값비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전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권위를 인정을 받는 사관학교,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유물 중 총통이 다년간 전시까지 되어서 지정까지 되었는데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짜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단순하게 진품을 진열했느냐, 또는 모르고 그러한 모조품을 전시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서울市가 이러한 일을 혹시라도 반복을 한다면 우리 서울市の 위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局長의 이름까지도 이것은 상당히 치명타를 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審査委員의 위촉이라든가, 물론 이미 되어 있겠습니까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97년에 총 예산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기증을 빼고 일반

적으로 매도신청이 들어온 것이 959건에 107억 3,400만원 이네요. 그러면 유물 1개당 평균적으로 원매자가 부르는 것이 1,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39건 이것은 일단 접수를 해서 3차에 걸쳐서 심사한 결과 28억1,900만원 이렇게 따지고 보면 1개당 평균 830만원 정도밖에 안 먹힙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고가품도 있고 저가품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市立博物館에 구매를 해서 전시를 하고 보관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이러한 훌륭한 유물이라면 어떠한 물건인지 고사하고 액수 자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전시되고 난 유물이 아무런 유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심하게 말하면 가치성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부 장사꾼들의 재고정리를 우리 서울시가 해줬다 하는 그러한 비난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물의 전시 건수보다는, 또는 1개당 금액보다는 정말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구입을 하고 보관을 해서 후대에 넘겨줄 그러한 가치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다 더 주안점을 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서 지금 현재 평균단가라든가, 총예산이라든가, 또는 339건을 3차에 걸쳐서 최종확정을 해놓은 그러한 배경, 정말 局長이 지금 공무원이시니까 다른 부서로도 가실 수가 있고, 또 승진도 하실 것이고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은 과연 책임을 지고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그러한 339건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張精一 委員님께서 유물의 중요성과 격

정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물을 저희가 기증을 하든,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하든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직 직원들도 교육을 잘 하고 다른 기관에 견학도 하면서, 하여간 걱정하시지 않도록 유물의 구입,관리, 나중에 전시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大運; 張精一 委員님, 답변되셨습니까?

○張精一 委員; 네.

○委員長 劉大運; 다음 朴贊國 委員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文化局長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文化局長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大運; 朴贊國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國 委員; 朴贊國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局長께서 서울觀光振興綜合計劃案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요약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擔當局長께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게 맞춰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관광의 제약요인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세계적인 관광시설 및 상품의 부족, 즉 말해서 볼거리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즉 관광호텔, 특급호텔 규모겠죠. 세 번째로는 외국인 수용태



세가 미비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높은 지가라든가, 수익성 저조라든가, 정부의 각종 규제시책, 또 종사원관리, 환경악화 등 이런 부분이 있고, 즉 말해서 각종규제 法令이나 制度에 의한 제약조건 과다로 해서 관광개발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즉, 과밀억제권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군사 보호시설구역 등 이러한 것은 中央部處에서 전혀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觀光振興綜合計劃案을 요약해서 내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中央部處와 어떤 협의를 해서 내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文化局 자체에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내놓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文化局長 李相鎭; 저희 文化局에서 앞으로 이런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中央部處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文化局的 의지입니다.

○朴贊國 委員; 지금 현재 文化局的 의지만 가지고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떻든 이것은 中央 部處와의 절대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지금 현행 실정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용으로만 끝낼 것인가?

지금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용으로만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좀 文化局에서 추진

력이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안에 대해서 都市計劃局하고 조금이라도 상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저희가 이것을 보고하는데 옆에 협조라인에 보면 都市計劃局長, 都市計劃課長, 또는 무슨 係長 해서 협조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풀겠다고 사인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文化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종합 계획으로 21세기를 내다본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文化局에서 이런 것이 제약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朴委員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文化局에서 이것을 이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어주시고, 걱정하시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朴贊國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文化局的 걸치레 행정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절대 中央部處의 협조 없이는 이것이 생각하는 바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文化局에서 서울 시민을 위하고, 정말 국제협력의 어떤 관계개선을 위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즉, 걸치레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贊國 委員; 다음,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市立博物館 전시유물 구입에 대해서 접수대상 에 방금 文化局長께서 금년도에 339건에 28억 1,900만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20억원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8억 1,9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追更에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3차 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차 심의가 남아서 339건 중에서 천상 예산범위 내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축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우선적으로 유물 신청에 대한 우선순위랄까 이것을 즉 해서 천상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도에서 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朴贊國 委員;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물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즉 말해서 신문공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재 339점이 대상이 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상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구입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우리 局長말씀대로 내년예산에 한다, 그러면 즉 유물을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어떻게 생각할는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지금 朴委員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략 가지고 있는 분들의, 더 나오겠지만 대개 지금 박물관에다 전시할 유물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략은 파악하고 있

습니다. 벌써 신청이 되고 저희가 2차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대개 어느 분이 어떤 유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市立博物館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위에 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20억원인데 마스터플랜에 보면 내년도는 80억 원으로 결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못 사는 것은 그분한테 양해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유물 소장자가 우리 局長 말씀대로 양해를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유물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文化局長 李相鎭; 참 어렵습니다.

○朴贊國 委員; 어려운 입장인데 소장자가 마음에 들면 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내년이라도 나 이것 못하겠노라, 기분 나빠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내 것은 채택이 안 됐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품을, 즉 국보급에 해당하는 물품이었는데, 소장자가 생각할 때 국보급에 해당하는 이러한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왜 내 것은 안 해 주고 다른 것은 했느냐 라고 기분 나빠서 내년에 내놓지 않을 그러한 공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공산도 있습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과연 이 市立博物館이 대한민국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감사합니다.

(劉大運 委員長, 張精一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張精一; 朴贊國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在浣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본위원회도 여러 차례 서울관광진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종합계획서를 보니까 매우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받고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서울시의 관광종합계획은 꼭 이런 내용들이 더 보완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2,000만원, 본위원회도 豫決委員입니다만 한 3억원 정도는 가져야 넉넉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서울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中央部處, 文體部에서 좀더 적극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 관광, 우리 나라 관광에 관한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생각되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中央部處 에도 우리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또 하나, 지금 6월 7일, 8일에 서울단오민속축제를 용산 가족공원에서 하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徐在浣 委員; 본위원과 우리 동료 몇 분이 작년에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로, 또한 동료위원들도 그 축제를 보고서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행사의 기본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방향을 바꿔서 정말로 서울市民들이 다 서민에서부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일부 區 단위로 해서 일부 층만 참가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결들인다면 거기에 공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데 우리 전통적인 서커스공연 같은 것도 포함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현대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우선 홍보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 다만 홍보가 거의 안 됐었습니다. 25개 區廳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이 그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가족공원이 넓고 좋습니까? 평소 때도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걸맞게 하고, 앞으로 날짜가 있으니까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그리고 결들여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市立博物館인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5대 도시의 하나이고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市立博物館이 진작에 만들어져서 관람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짓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유물 구입 단

계에 와 있는데, 사실은 소장품이 준비가 먼저 되고 거기에 맞는 박물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면서 이제 소장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소장품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로 다 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소장품 이것은 미리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에 신경을 써서 넉넉히 예산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소장품 구입을 함에 있어서 어느 때는 좋은 소장품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소장품을 구입하는데 먼저 심혈을 더 각별하게 기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물관만 지어놓고 소장품이 제대로 거기에 맞게 진열이 안 되면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민 뿐 아니라 大韓民國 국민이 볼 때 내용이 없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英順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委員; 우선 文化財課長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文化財課長 延益欽; 文化財課長입니다.

○李英順 委員; 지난번 구로구 계남공원에 테니스장 설치를 하다가 문화재 발굴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文化財課의 주재 하에 文化財管理局에 판독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文化財課長 延益欽; 네.

○李英順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文化財課長 延益欽; 지난 번에 방문해 주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文化財管理局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것, 현물을 주민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文化財管理局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文化財管理局에서 그 사진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니까 발굴됐다는 데는 있지만 실지로 거기에서 발견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아마 판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오기를 文化財保護法 제43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는 발굴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하거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어떤 공사를 하다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文體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서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文化財管理局에서 저희한테 오기로는 일단 사업을 하다가 발견됐기 때문에 발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고를 해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사해본 바 발굴된 것은 원래 서울대학교 임효제 교수나 이대 최숙경 교수가 본 것과 같이 8·9세기 것으로 추정은 된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공문이 다시 九老區廳으로 가서 九老區廳에서 발굴계획을 전문기관에, 2가지가 있습니다. 발굴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각급 대학에 있는 박물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2가지 중에 어디에서든지 발굴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九老區廳에서는 그 사업자가 계속 자기네가



발굴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게 할 것인지를 절충하고 있고 아직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李英順 委員;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되고 九老區廳에서는 테니스장 설치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한 것이었고 그 인근지역에 사는 九老區 주민들은 테니스장 설치반대를 하면서 대립적 관계로 문제가 부닥쳤는데 區廳의 관련직원들하고 테니스장 설치 업자는 이 문화재에 관한 것을 목살하고 테니스장 설치를 강행하다가 유물이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폭력적인 싸움까지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민간업자에게, 민간업자가 테니스장 설치를 한 것이지 유물 발굴한 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 설치업자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이 문제는 또 건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제가 課長님한테 얘기드렸듯이 關聯區廳의 공무원은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유물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분열시키는 문제로까지 지금 가서 아직도 대립적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에게 맡겨서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또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文化財課長 延益欽; 그런데 업자한테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 일단 區廳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이니까, 허가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區廳에서 줌.....

○李英順 委員; 문화재 발굴팀에게 맡겨야지.....

○文化財課長 延益欽;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

을 제시해 주면 文化財管理局하고 협의해서 하겠는데, 결국은 비용부담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허가 받은 그 업자가 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李英順 委員; 그 사업자는 테니스장 설치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文化財課長 延益欽;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중지시켜 놓은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발굴을 못하도록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의욕이 있다, 또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발굴은 국가기관에서 하든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다만 그것이 시간을 끄니까 민원문제의 관계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대로 지금 공사는 못하고 있는 거죠.

○李英順 委員;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만 그 업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테니스장 설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부 시간과 재정적인 것이 투여가 됐다라고 해서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테니스장 설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8세기 유물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을 넘기면 서울시나 九老區廳은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문화재 발굴팀에게 이 사업이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 좀 알아보게요.

○李英順 委員; 아무튼 폭력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이랬었거든요.

유물이 나왔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포크레인을 갖고 마구잡이로 들이대면서 파헤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李英順 委員; 그리고 5월 단오제에 관한 것, 아까 局長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아직 계획이 완료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文化局長 李相鎭; 지금 그 용역을 아마 한국의장으로 審査委員會 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한국의장에서 자기들이 행사계획을 내서, 이제 아마 들어와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작년 보고서에,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메모리를 전부 해 놓거든요. 그래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그것을 봐서 금년에 만드는 계획에 여러 가지를 해서 바로 확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英順 委員;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李英順 委員; 그리고 觀光振興綜合計劃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금방 짧은 시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견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흥미 거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다른 때와는 달리 볼거리에 대한 계획들이 죽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거리에 관해서 일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인들을 접해 봤을 때 한국의 전

통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한 흥미가 일차적이에요. 다른 서구적인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더 전문적이고 자기네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최대한 다양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발굴을 해 내는가, 개발을 해내는가 그것이 가장 큰 흥미거리의 일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전통공예품도 굉장히 섬세하게 개발을 해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에 관해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류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아직까지 의류산업에 있어서는 품질이라든가, 가격 면에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류산업을 같이 매치시켜 낼 수 있는 이런 것에 역점을 두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코스를 라코스테공장을 견학하고 물품을 한 보따리 사들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영국의 버버리라든가 이런 코스가 절대적으로 같이 그 나라의 여행코스에서 꼭 잡혀있듯이 이태리 가면 가죽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의류산업에 대한 그런 것도 역점을 두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산품에 관해서는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상품의 거리로 만들고, 이 부분이 저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中央政府하고 어떻게 연결을 갖는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中央政府하고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통해서 서울관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서울관을 설치해 놓고 서울이 이렇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리를 가지고 地方政府가 독자적으로 문화개발 내지 관광개발을 해낼 수 있는 자기 독자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내면 서울시가 얼마든지 독자적인 관광개발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인과 유럽인, 아시아 관광객과 유럽관광객에 맞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계획으로 세분화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一目瞭然한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관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觀光振興公社와 貿易振興公社 이 두 곳을 통해서 해외에 상품거리로 가장 내세웠던 것이 여성들의 서비스, 마치 여성들의 상품화로 1차적인 한국의 관광거리로 내세웠던 이런 역사의 오류와 수치,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李英順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英順委員 질의한 것 중 文化財課長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테니스장 현장에 우리 文化財課長께서 한번 가보셨어요?

○文化財課長 延益欽; 가봤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지금 그 보존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냥 막연하게 공사를 안 한다, 이런 것 말고 예를 들

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떻든간에 개입이 된 것입니다, 본의든 아니든간에. 그러면 이것이 8·9세기 유물이고, 또 그런 것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시비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행여나 그것이 진짜라면 그렇게 판명될 때는 우리가 최소한도로 그렇게 판명될 때까지, 또 아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것으로써 우리 文化局의 소임이 다 끝났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분명한 판단이 섰을 때까지, 우리가 관할이 없으면 警察廳이든, 文體部든 출입통제도 시켜야 될 것이고, 현장을 어떠한 판정이 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

○文化財課長 延益欽; 테니스장 공사관계는 사실은 文化財課하고의 관련이 없던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테니스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아마 엄청나게 양쪽의 힘의 겨루기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지막에 가서 매장문화재 관계로 해서 그것이 초점이 저희한테 책임이 와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말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잘못하면 關係部處끼리, 文體部는 中央政府입니다만 서로 책임의 핑퐁을 하다보면 나중에 거기에서 8·9세기 진짜 좋은 유물이다 이런 판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라도 뭔가 우리 文化局

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아닌 그러한 뭔가 분명한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테니스장을 계속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소유고, 우리 전체 국민의 소유거든요. 그러면 우리 文化局에 있는 직원들이라면 다른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보다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文化財課長 延益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언론이 겁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것이 진짜인데 우리 文化局에서 어쨌든 간에 알고 있었는데 사후조치가 미비해서 깨진 것이 나오고 도굴꾼이 가서 몇 개 훔쳐가고, 이러한 오명을 덮어쓰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文化財課長 延益欽;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永奭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永奭 委員; 盧永奭 委員입니다. 文化局長께 묻겠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비용이 말을 빌리는 비용이 제일 많다고 하셨다고요. 대략 한번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70만원입니다.

○盧永奭 委員;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을 한 번 빌리는데 70만원이면 1주일에 2번 하면 140만원이에요, 그렇죠?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죠.

○盧永奭 委員; 지금 여기 보면 70만원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라 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승마를 하기 때문에 말값이 얼마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局長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네.

○盧永奭 委員; 한시적으로 몇 번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다고 보면, 물론 우리市의 재정이 아주 풍족해서 빌리는 값도 많이 주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특수상황에서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챙기면 執行部에서 잘못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 한 필에 보통 300만원, 500만원 하니까, 물론 명마가 몇 억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대입이 안되는 것이고, 아마 교대의식 행사에 나오는 말 정도 같으면 한 3·400이면 구할 수 있다는 얘가지요. 그러면 그것을 구해서 서울市에도 승마구락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70만원이 한 번에 5만원 내지 10만원이면 가능하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文化局長 李相鎭;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盧永奭 委員;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빌리는 값이 70만원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아주 확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과거제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지금 운현궁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區廳 문화원이 있는데는 거기에서도 그런 행사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서울시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감명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지금 11개 문화원의 원장이 거의 무슨 운수회사 사장이라든지 기업체 사장이에요, 그렇죠? 그것 조사 안 해 봤어요? 거의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局長께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文化局長이 하시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文化局長 이하 우리 關係公務員 모든 분은 서울시 같은 공무원이라도 가장 신사요, 문화에 밝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원장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나라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문화사업에 앞장서서 그 문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局長께서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문화,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를 이끌어갈 때 제대로 가는 것이지 그 본인이 잘 모르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돈만 있고 무능해도 명예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왔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해온 결과, 이것은 좀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행세를 해서 이 나라가 온통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간 못하는, 적어도 우리 서울市の 문화행정은 그런 것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문화원의 원장은 경륜 높고 식견 있는 분들로 바꾸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산업은 분명히 3차 산업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무자본 같은 무형의 산업으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전망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란서는 인구가 4,700만인데 1년의 관광객이 6,000 만이라고 해요. 관광수입이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또 우리 나라도 과거의 관념이 관광하면 있는 사람 놀러다니는 것으로 치부했던 시절은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局長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상당히 매력 있고, 또 장래가 아주 밝은 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산업의 기본방향을 이렇게 案으로 제시하셨는데 다른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연 이런 기본방향을 수립할 때 전문가 집단의 어떤 기획단이 있었는지, 그래서 案이 잘 짜여졌는지,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볼거리 개발이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분에게는 볼거리가 꽤 많을 것이고, 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본이 빈약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나라 서울市 교통이 세계에서 드물게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물론 상당히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特別市の 교통행정이 문제이고, 소위 운전자들이라든지 교통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자는 어떤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고 주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文化局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운전대에 앉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흥분을 하는 것이 아마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그래서 안 된다든지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韓國에 왔을 때 아, 韓國의, 특히 서울特別市の 교통은 참 혼잡하고 어려운데 그 운전하는 분들의 매너가 됐다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文化局長으로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문제도 이 관광 진흥 기본방향의 한 부분이었으면 하는, 왜냐 하면 지금 이태리, 불란서는 관광수입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 특히 서울市の 수입도 자동차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서울市の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세수가 자동차로 인해서 된다고 한다면 서울特別市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중 있는 부분을 상당히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 局長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盧永奭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魚潤慶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魚潤慶 委員; 魚潤慶 委員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 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단오민속축제를 6월 7,8일 양일간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 내용은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아마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혹 많이 빠지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같 까 생각을 합니다.

단오민속제 하면 민속놀이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 우리 나라의 민속놀이 하면 특히 단오 때는 씨름, 그네, 창포에 부녀자들 머리감는 것, 이때쯤이면 땅재주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택견도 하고 그런데 택견이라는 것이 원래 옛날 고구려 때는 종합적인 무예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새 태권도 하면 소림사 달마로부터 이렇게 연원을 찾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고구려가 망한 뒤에 부분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무예로 남아서, 전에 노인네들한테 듣기에 평양에는 박치기가 남아 있고, 서울에는 발차기, 택견이 남아 있는데 흩어져서 나름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택견하면 발차기, 발 쓰는 것을 가장 주무기로 쓰는 스포츠 같은데 거기의 한 범주로 요즘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땅재주 부리는 것, 요새 신식으로 하면 덤블링의 일종이고 그런 범주에 들겠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물구나무 서서 달리기 라든지, 그것이 50m, 100m 이래서는 안 되겠죠, 힘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옛날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 한번 올려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국민건강에 대단

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종묘대제, 이 종묘대제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런 제례문화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뿐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에베레스트가 왜 높으나, 히말라야산맥 중에 있기 때문에 높다 하는 얘기를 하죠. 종묘대제 한 가지만을 가지고, 물론 제례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제례문화가 이렇게 상당히 발달하는 바탕에는 사대부라든지, 아니면 일반서민들의 제례문화가 생활화되어 왔고 무척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격식화되었고 문화로 지정될만큼 발달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라든지 어떤 보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이 아직 없잖아요, 서울에도. 그러니까 사대부나 일반사가의 제례 또는 시향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2년 동안을 산 분처럼 모시죠. 대상이 지나면 제사로 모시고 그 이전에는 하루에 세끼 밥을 올리고 3식을 올리면서 산 분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정성으로 모시는데 그 이후에는 제사를 지내고 기제사라고 그러죠. 그랬다가 그 뒤에 5대부터는 시향으로 넘어가는데 불천지위라고 왕의 제사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큰 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4대까지 기제사로 모시는 형식으로 불천지위 제사다 해서 돌아가신 날로 몇 백년이 지나더라도 혹은 몇 천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 법도

로, 유교문화의 하나로 우리가 세습을 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몇 개는, 몇 개가 뭐 하면 하나라도 지정을 해서 보존하고, 아마 일반서민들이 종묘대제를 보면서는 아, 우리도 저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그러나 웬만한 사대부 집에 내려오는 전통가례나 제례에서는 똑같이 한 제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요새 서구화되면서 이런 제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희박해 가거든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제례문화라는 것이 점점 증발해 가는데 앞으로 한참 더 가면 그것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이 얘기를 하는데 꼭 몇 군데 가문에서 발췌를 해서 보든지 해서 이런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시급히 무형문화재라고 하든지 그런 것으로 보존을 해 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그리고 사양전통문화 발굴 지원을 한다고, 동춘곡예, 마포나루굿 등 12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요전에 어디에서 동춘곡예 관계되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렵게, 옛날에는 동춘서커스 하면 대단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겨우겨우 명맥이 유지되는 모양인데 1억 6,400만원으로 12개 사업을 지원했다면 이 동춘곡예에는 대략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4,000만원 됐습니다.

○魚潤慶 委員; 비교적 다른데 비해서는..... 그 4,000만원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해 주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

까, 그쪽에서?

○文化局長 李相鎭; 적다고 그러죠.

○魚潤慶 委員;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시에서 편의를 봐 줘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지금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분수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동춘곡예단이라고 施設管理公團 에서 장소니 이런 것을 전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魚潤慶 委員; 한시적이죠?

○文化局長 李相鎭; 한시적이죠. 옛날 서커스 같이 천막치고.....

○魚潤慶 委員; 으레 서커스는 그래야 더 운치가 나는 것이죠. 거기 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나라 서민들의 정서가.....

○文化局長 李相鎭; 어제 공원음악회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동춘곡 예단장이 앞에 와서 市長님이 가시니까 市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다 놓고 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손님도 어제는 특별한 날이니까 많았겠지만 어제는 손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魚潤慶 委員; 러시아곡예단도 와 있죠?

○文化局長 李相鎭; 네, 거기에 와 있습니다.

○魚潤慶 委員; 우리 나라 대표하는 곡예단하고 러시아나 다른데 하면 우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쪽 곡예기술이 훨씬 나아서 우리 나라 대표하는 동춘곡예단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하게 되는데 같은 장소에 그 둘을 하게 해 준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언제 토요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

부들하고 한번 가서 서커스 구경도 하고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글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 동춘서커스가 있는 같은 에어리어 안에 외국의 서커스를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검토해 보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제작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50억원 책정했었죠?

○文化局長 李相鎭; 네.

○魚潤慶 委員; 그러다가 20억원 미만이 되었는데 행여 이 사업비 축소가 사업규모나 동상의 규모 이런 것들을, 또는 그 질에 있어서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하다 보니까 20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충분히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50억원 예산을 책정을 했었다면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잘못된 것이고.....

○文化局長 李相鎭;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동상에 대해서는 급작스럽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전문가로 하여금 몇 m는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저쪽 진해에 이순신장군 동상이 그것이 몇 m였느냐 하면 25m로 국내 최대의 동상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48억 9,000만원이 들었다, 48억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세종대왕 동상도 그래도 이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진해에 있는 것은 부뚝가에 해서 공단조성까지 해서 굉장히 크고, 서울의 세종대왕 대왕님 동상



인데 너무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안 좋지 않느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앞에 꽃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과 친밀한 우리의 세종대왕 이런 것으로 해서, 덕수궁에 있는 동상은 너무 작고 저것보다는 크게, 그래서 했더니 그것이 10m 정도가 적당하겠단다, 이렇게 되어서 산출하니까 18억원 정도로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이것을 보면서 경주의 에밀레종이 천년이 지나도 성종이듯이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모시는 세종대왕 동상이 아주 저명한 조각가에 의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의 한 예술조각품으로 길이 남아서 앞으로 천년이 가더라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걸맞는 그런 동상이 만들어졌다고 칭송이 되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감사합니다.

○魚潤慶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觀光振興 綜合計劃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 참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여태 내려오던 일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관광특화지구 구성에 덧붙여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관광지로서, 또 관광적인 효과로써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선사유적지의 경우 지금 현재 너무 초라하거든요. 짜임새나 규모나 이런 것이 너무 초라해서, 이 선사유적지를 보완·개발하면 아주 대단히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인류 사회에 대한 것, 이미 선사유적지라는 의미부터가 인류사회에 대한 뜻을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의 문화사라든지, 우리 조선하면 수 백년, 수 천년의 외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게 이 강토를 지키고 역사를 지켰던 자랑스러운 민족혼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 보존가치로 해서 전쟁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선사유적지 안에 담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아주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실 외국에서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볼 것이 점점 없다 해서 와봤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경우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숫자도 그렇게 증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사실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또 외국관광객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또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도 많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선사유적지에 대한 것,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市長님을 모시고 각 區廳에 초두순시 갈 때에 江東區廳을 나갔었습니다. 그 때 江東區廳長이 선사유적지 일대를 문화관광지구로 용도지역을 해제 건의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적지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땅을 민자유치 내지 또 일부는 區廳에서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용역까지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할 일이 있으면 잘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행정적인 관심보다도 물론 예산도 뒤따라야 하고, 지금 현재 시급하게 보완하고 확장해야 할 일들이 상당

히 있거든요. 1년에 몇 억 하면 지분가는 것에 불과해요.

○文化局長 李相鎭; 아마 예산관계는 內務局에 있는 특별교부금, 그 관계를 가지고 건의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쪽에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외국에 가보면 인류사박물관 하면 외국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하죠. 문화사박물관 하면 또 그쪽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전쟁박물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그런 것 하나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우리 나라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魚潤慶 委員; 이상입니다.

(張精一 幹事, 許光泰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許光泰; 魚潤慶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達源 委員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源 委員; 李達源 委員입니다.

이 서울觀光振興綜合計劃要約案이 언제부터 마련되어서 지금 정리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이것이 1월말부터 했습니다.

○李達源 委員; 市長님 지시사항이에요?

○文化局長 李相鎭;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런데 이 정도의 종합계획안을 세우려면 아까 朴贊國 委員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사실 종합적이 되려면 각 部署의 협력도 받아야 되고, 中央部處하고의 협의문

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부수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더 타당성 있는, 현실성 있는 검토를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왜 그러나 하면 그 동안에 계획이 사안별로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들을 짜집기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文化局長 李相鎭; 지금 이것은 요약분으로써 57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원보고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서너 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부서하고 일단 관광협회라든지, 호텔협회라든지, 기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단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 50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계획이 나오고, 이 것은 요약분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그 중에는 中央 部處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法改正이라든지, 制度改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文體部라든지 기타 中央部處에서 서울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을 안 하고 전국을 일률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서울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특례규정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하게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李達源 委員; 局長님 오셔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李達源 委員; 局長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500페이지 분량의 계획안이 나올 정도면.....

○文化局長 李相鎭; 죄송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李達源 委員; 하여튼 100여 페이지가 넘게끔, 소위 말하자면 종합 계획안이 나오게 할 정도면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왔거나 市長님의 특별한 방침으로서, 소위 서울시정 7대과제 중에 하나인 문화도시에 걸맞는 관광도시로서의 계획을 잡아서 실시가 되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文化局 개념이 아주 애매하게 자리잡혀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런 것이 局長님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서 계획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나 市 전체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이런 계획안이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文化局長 李相鎭; 물론 저도 발령을 받을 때 市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觀光課長이 발령 받을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관광을 잘 챙겨서, 관광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팀들이 와서 市長님의 간곡한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관광문제를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뭔가는 단기성이 아니라 이것이 2000년 문화도시라고 그러는데 결국 관광도시란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데에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자료까지 받아서 지금 세 달 조금 더 걸려서 작품을 일단 만들어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된 것이 실천이 100% 다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저희가 계획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실현이 되도록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 동안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적인 여건조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아이템개발,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나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아이템개발이 필요해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리고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文化局 산하에 事業所 2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직제표상 나와 있는데 世宗文化會館 같은 경우 지금 館長이 보통 3급으로 해서 별도로 인사발령이 나는데 지금 이것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의 집행관계 속에서 文化局의 事業所로서의 世宗文化會館이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文化課 산하 事業所입니다.

○李達源 委員; 그런데 世宗文化會館長이 3급이니까 文化課에 소관 事業所로서는 이것이 직제상 안 맞잖아요?

○文化局長 李相鎭; 아니요, 직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李達源 委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世宗文化會館의 대여를 채우는 각종의 공연내용이 서울시 文化局의 문화사업계획하고 상호 연계 속에서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을 느끼느냐 하면 아마 文化課長님이 참여했을 거예요. 저도 世宗文化會館 소장당 대여심사위원이라고 위촉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한 번 참여를 했는데, 그 소장당 대여기준이라고 할까 대여자들의 면모를 보면 소위 말하는 고급예술이거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

고 국내에 들어와서 실습연주회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의 대여 방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文化課 차원에서 전혀 통제가 안 돼요. 文化課長님도 그날 나오셨는데 대여심사과정에서 전혀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시킨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서울市民의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世宗文化會館의 문화공연이 얼마만큼 文化課의 주관 하에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가,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상호협력이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世宗文化會館은 완전히 별도로 사업소로 해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世宗文化會館의 문턱이 높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도시하면서 문화의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世宗文化會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시의 문화기회를 확대해 나가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될거예요.

○文化局長 李相鎭; 네, 앞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잘 되도록.....

○李達源 委員; 世宗文化會館長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 더군다나 文化局長 하던 사람이 文化課의 사업소장으로 가는 이런 식의 서울시 인사발령은 결국은 世宗文化會館에 대해서, 소위 民選市長이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문화의 도시, 문화공연의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발령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리고 지금 5월 6일부로 문화재관리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서울시行政機構設置條例에 보면 문화재관리계가 없어요. 계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市長이 직접적으로 편제 할 수 있어요?

○文化局長 李相鎭; 규칙사항입니다.

○李達源 委員; 규칙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文化局長 李相鎭; 네.

○李達源 委員; 그러면 사안별로 잠깐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의 개념에서 자꾸 전통적인 문화의식이랄까, 문화행사 위주로 사업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라는 개념이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개념차원에 있어서의 문화를 어떻게 던져줄 것이고 제시를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서울시의 문화적 외향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자꾸 전통적인 것만 찾아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문화로서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세종대왕상을 시내에다 세운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학문적 경륜이라고 할까, 본받을 만한 유교적 정신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종합적인 문화적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외향적인 것도 복원해서 맞물려가야 올바르게 제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외향적으로 자꾸 복원하고 복원하는 식의 던져주는 사업은 별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종합적인 문화 차원에서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리고 외향적으로 특히 전통생활문화를 중시를 하는데 생활문화 차원에서는 생활한복 있지 않습니까? 생활한복이라고 요 즘 文體部에서 우리 한복입기운동을 벌이면서 월1회 한복입기를 하는 데 고궁출입 같은 경우 우리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출입하게도 하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市 단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사실상 전통한복이나 생활한복을 입는다 그러면 서울市民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방에 있어서는 아직 생활한복이랄까 한복을 입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식이 안 되어 있어요. 지방만 해도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中央政府의 정책은 서울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文體部가 우리 한복입기운동을 벌인다면 결국 그것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서울시가 이것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랄까 생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文化課長님한테 개인적으로 사적인 전화를 통해서 생활한복에 대해서 지금 市 단위에서 확대하거나 권장할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세요. 도대체 中央政府는 中央政府대로 따로 놓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 안 해 주면서 나중에 서울시 정책이 이러니까 中央政府에서 협조해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서울시 단위에서 같이 나서서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요즘 생활한복이라고 해서 많이 개발이 돼서 상당히 수요가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수요나 관심이 자꾸 높아져 갈 때 이럴 때 서울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리고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7군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文化局長 李相鎭; 7군데요?

○李達源 委員; 네, 옛날에 업무보고 보니까 서울시에 7군데 정도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인사동만 하는 거예요?

○文化局長 李相鎭; 인사동은 하고요, 금년이 세계연극제가 열리기 때문에 대학로하고 비원 앞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文體部하고 警察廳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원 앞의 길은 교통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동은 됐고 지금 현재 기간 동안 대학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전혀 각 區別로 차 없는 거리 확대계획은 없어요?

○文化局長 李相鎭; 그것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검토하지 市 단위에서 서울시를 몇 군데 잡는다 이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리고 어린이과거제 이것도 나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과거행사를 재현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과거시험내용을 어떻게 채울 예정이에요?

○文化局長 李相鎭; 추진위원회에서.....

○李達源 委員; 한문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고전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과거시험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文化財課長 延益欽; 文化財課長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현궁에서 어린이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고종황제가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신 뒤에 운현궁을 대대적으로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9개월 걸렸는데 준공식 비슷하게 했을 때 왕이 거기에 행차를 해서 고종께서 어렸을 때 인근에 같이 놀던 학동이나 선비들을 모아서 별시를 치른 사실이 있습니다. 운현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옛날 과거와 같이 시제를 주어서 작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들 수준의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몇 개를 사전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예고를 해 주고 그 날 절차만은 과거하는 절차로 하고 내용은 시조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조금 발전되면 앞으로 이제.....

○李達源 委員; 시조를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 않거나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조시험을 본다는 것이.....

○文化財課長 延益欽; 그런데 지금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나 데려다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李達源 委員; 물론 아무나 데려다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이 교과학습으로나 교과과정에 특별활동으로라도 있다 그러면.....

○文化局長 李相鎭; 국민학교 교재에 있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안을 대개 3개로 잡고 있는데 국민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李達源 委員; 하여튼 요즘 컴퓨터 만지고 영상매체에 발전되어 있는 애들한테 과거제를 시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통행사로서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 이거죠.

○文化局長 李相鎭; 아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로 볼거리만 만드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이것이, 운현궁이 작년엔 복원이 완료되니까 운현궁 건물이 완료된 데에다 그냥 건물만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종황제와 민비의 가례행사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운현궁에서 고종이 어릴 때 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별시를 또 집어넣었고, 그런 식으로 가꾸어 가려는 것이 좀 미흡하더라도.....

○李達源 委員; 차라리 초등학생들을 교과과정 중의 1시간 정도 전통학습시간으로 해서 가례행사라든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전통적인 행사를 가서 견학을 하게 하고, 또 실지로 보고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과거시험 본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에요.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李委員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건립이 지금 장소 선정이 되어있는데 장소가 주는 접근성이 검토가 됐어요?

○文化局長 李相鎭; 네, 여의도공원 가운데 메트로폴리스 같은 광장이 있고 그 옆에 잔디부분이 크게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향으로 해서 잔디공원 앞에다.....

○李達源 委員; 아니, 제 말씀은 접근성이라고, 말하자면 일반시민 들이 세종대왕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 현장에 와서 보는 사람이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장소 심의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검토가.

○文化局長 李相鎭;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런데 어떻게 여의도공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정이 됐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文體部에서 요청은 지금 광화문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진짜 다니는 행인이 별로 없거든요.

○李達源 委員; 차량행렬은 많잖아요.

○文化局長 李相鎭; 차량행렬은 많은데 아까 李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지금 하다 못해 이순신동상이 지나가는 사람은 많이 보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목념을 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꽃송이 하나라도 놓을 수가 없는, 시민과 격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안 좋다, 그래서 10만평이나 되는 큰 공원에 많은 시민이 오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李達源 委員; 여기 장소 후보지가 몇 군데나 거론됐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3군데 거론됐었죠.

○李達源 委員; 어디어디예요?

○文化局長 李相鎭; 世宗文化會館 옆에 세종공원하고, 그런데 세종공원은 밀이 주차장이에요. 그런 무거운 동상을 놓으면 주차장이 주저앉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쪽은 너무 좁고, 그래서 여의도공원이.....

○李達源 委員; 시청앞에 오거리는 거론이 안 됐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네, 거기는 안 됐습니다.

○李達源 委員; 하여튼 접근성의 개념이 그냥 직접 그 현장에 간다는 의미도 있고 보고 지나가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文化局長 李相鎭; 장소가 중앙에 아주 좋은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자매도시 교류사업 보고서 발간, 이 기대효과에 보면 행정정보 및 경험에 시정자료활용, 그 다음에 교류협력 강화차원에서 자매결연하면서 교환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각종의 교통, 환경, 청소, 주택, 행정의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이 사실 종합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文化觀光局에서 文化局으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자면 관광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文化局 차원에서 흡수시켜서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文化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런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趙市長님이라든지 다른 市長의 조직개편의 하나로 보는데 文化局的 우리市 각 室·局에서의 위상이 아직은 사실 저조한 편이란 말이에요. 종합행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室 개념이라든지, 최소한 內務局에 준하든, 하여튼 다른 室·局과의 협력적 관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文化局 위상으로서는 소위 말하면 종합문화로서의 행정적 개념까지 도입할 그런 처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局長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文化局이 좀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시다. 지금 하도 서울市 관광진흥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이 계획서를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사안별로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市長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과 기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등의 指針까지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지금은 제가 오늘 받아서 검토를 못해 봤지만 차후에 원래 원본을 주셔서 다음 회기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일을 하려면 한정 없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하셔서 局長님의 추진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감사합니다.

(許光泰 幹事, 張精一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張精一; 李達源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文化財課長께서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許光泰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 또한 그렇고 답변하는 관계집행관께서도 그렇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아마 제 질의가 마지막 질

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文化局長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일의 추진력이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감을 느끼면서, 고궁에 신혼부부촬영이 시대적 문화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촬영으로 인해서 직접 고궁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방해요인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장소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꽃말을 붙여서 이 지역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람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5·6월의 주요문화행사에 대해서 7쪽을 보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6월의 주요문화행사라면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전통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정작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원음악회, 서울단오민속축제, 서울공예대전 이것이 전부인데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가 없습니다. 지적하면서 추가행사계획을 시급히 짜야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유행과 신드롬에 젖어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과 우리 어른들이 주는, 더더욱 문화가 주는 향유는 제공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局長 李相鎭; 許委員님 말씀 동감입니다. 마련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또 하나는 어버이날 행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행사는 있는 것 같은데 어버이날 행사에 효부상이라든지, 그 밖에 서울시 차원에서 해나갈 행사가 상당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버이날행사도 빠진 것 같습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許委員님,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이 지금 家庭福祉局에 靑少年課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행사가 家庭福祉局 家庭福祉課에 家庭福祉係가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 하면 음식문화에서부터 교통문화, 모든 분야가 포괄적으로 문화로 들어가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또 분야별로 전부 있어요.

그래서 문화행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버이날 효자, 효부라든지, 기타모범가정이라든지, 모범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家庭福祉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문화차원에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해마다 해 오는, 통상적으로 해 오는 서울시 차원의 행사보다는 서울시 소관 文化局에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서 실시한다면 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양천향교 있죠?

○文化局長 李相鎭; 네.

○許光泰 委員; 양천향교의 운영실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魚潤慶 委員 말씀하십시오.

○魚潤慶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단오민속축제에 씨름종목도 넣고 있습니까?

○文化局長 李相鎭; 네.

○魚潤慶 委員; 민속경기 내지 민속축제다 하면 그 고장 특유의 전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서울의 씨름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의 씨름 형태와 달랐어요. 얘기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원래 서울의 씨름은 살바를 오른손으로 잡는 오른씨름입니다. 이것이 서울 뿐 아니라 죽 내려가면서 북쪽도 그렇고, 죽 내려가면서 고구려 내지는 백제 문화권에 이와 같은 씨름 형태가 옛날부터 전래해 내려왔어요.

또 충청일부가 포함되나 모르겠어요. 경상도, 그러니까 신라문화권에 서는 왼씨름을 해 왔어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서울 내지는 중부권에서 으레 단오때나 칠석때 씨름대회가 여기 저기서 열리는데 그 때는 왼손으로 살바를 잡으려면 재수 없다고 못하게 했어요. 끼지도 못하게 했어

요.

그러던 것이 아마 프로씨름이 생기고, 아무튼 우리 나라 군사문화가 정권을 잡고 거의 전횡을 하면서 아주 정형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프로씨름에 으레 왼손씨름이 되었고. 그래서 씨름을 보면 애들 하는 것을 봐도 프로씨름 하는 것을 그대로 본보기로 해서 왼손씨름을 해요.

서울씨름 내지는 백제문화권의 오른씨름은 완전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민속을 지킨다는 것, 또 서울의 민속축제로 하는 이 마당에 프로씨름하고는 거리가 있는 전통적으로 이 고장에서 지켜왔던 형태의 씨름을 재현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처음에 왼씨름으로 정형화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순수한 아마추어의 민손씨름이다 하면 적어도 이 서울에서는 오른씨름을 재현해 보고, 또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요즘은 지역적인 무엇보다도 전국 각처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전통적인 것을 살린다는 것이 희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局長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文化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 劉大運;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 2. 世宗文化會館所管業務報告의件

○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2항 世宗文化會館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4월 11일자로 새로 부임한 池健弘 世宗文化會館長 나오셔서 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지난 4월 11일부로 衿川區 副區廳長에서 世宗文化會館長으로 부임한 池健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劉大運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부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금과옥조로 삼아 世宗文化會館이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돋움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劉大運 委員長, 許光泰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許光泰; 世宗文化會館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世宗文化會館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贊國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館長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國 委員; 朴贊國 委員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질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감도 있습니다만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로 안다는 의미에서, 저도 후반기에 새로 文化教育委員會에 왔고 우리 館長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서로 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9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들은 서울시 에서 준 예산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소속이 되어서 그쪽에도 수입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朴贊國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世宗文化會館에 9개 예술단체가 있단 말씀이에요. 9개 예술단체가 단 世宗文化會館만 국한해서 수입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또 소속이 돼서 그쪽에도 수입원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전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전혀 지원 받는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文體部라든가 中央部處에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전혀 없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원은 32억원, 세출부분은 182억 5,000만원 맞죠?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네.

○朴贊國 委員; 어차피 이것은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필수적이지만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150억 5,000만원의 적자를 안고 있단 말씀이에요. 천백만 서울市民이 1인당 약 1,400원 정도를 1년에 世宗文化會館을 위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네.

○朴贊國 委員; 그렇다면 세출부분에 문화회관운영비가 94억원, 예술단체운영비가 88억 5,000만원 지금 현재 인력사

항을 보면 운영요원, 즉 말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되겠죠. 176명에 대한 부분과 예술 단원 620명, 여기에는 무급이 있습니다. 유급 360명에 대한 부분이 88억원 나가고 176명 분에 대한 것이 94억원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또 다른 일반운영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세입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세출부분에서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館長으로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아직까지는朴委員님이 질문하신 데까지는 못들어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朴贊國 委員; 좋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모르시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세출 문화회관운영비와 예술단체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본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본위원회가 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느냐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9개 예술단체에서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원인을 아마 우리 館長께서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97년도 하반기 소강당 공개 대관심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 구성은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는 어떻게 되고 내부 전문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내부는 저희 예술단체 단장하고, 總務部長, 그 다음에 公演部長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어떻게요? 내부는 예술단체…….

(許光泰 幹事, 張精一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張精一; 館長, 우리 朴贊國 委員 질의에 館長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준비가 안됐으면 관계관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고맙습니다. 그러면 公演部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演部長 張基豐; 公演部長입니다.

통상 저희가 여섯분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만 저희 會館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 총무부장이 들어가고 公演部長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전속단체 단장님들, 예를 들어서 음악, 무용, 국악 이런 분야에서 들어가고, 또 각 분야별로 사계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평론가 이상만 씨라든가, 김정길 교수라든가, 한상우 교수라든가 이런 각 대학교나 또는 평론가들이 대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9개 예술단체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어떤 때는 세 분 정도 들어갑니다.

○朴贊國 委員; 그때 그때 틀립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네, 그때 그때 좀 틀립니다.

○朴贊國 委員;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을텐데요.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숫자만 되어 있지 단체에서 몇 명 들어가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어느 어느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公演部長 張基豐;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간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公演部長 張基豐; 간사는 公演部長이 합니다.
- 朴贊國 委員;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 公演部長 張基豐; 위원장은 지금 현재 總務部長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朴贊國 委員; 總務部長이 위원장을 하고 公演部長이 간사를 하고, 그러면 외부인사는 다섯 분이 하고 내부에서 네 분이 결정되어서 한다면 이것입니까?
- 公演部長 張基豐; 네 분이 하는 때도 있고, 13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숫자는 그때 그때 다릅니다만 편의상.....
- 朴贊國 委員; 숫자는 다르다?
- 公演部長 張基豐; 네.
- 朴贊國 委員; 그런데 저번에 심사할 때는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아홉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하반기에 대관사용에 대한 것을 결정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公演部長 張基豐; 네.
- 朴贊國 委員; 그렇다면 9인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에 대한 회의록, 회의록 있죠?
- 公演部長 張基豐; 네, 있습니다.
- 朴贊國 委員; 회의록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9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3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 접수한 내용 가지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 公演部長 張基豐; 네, 알겠습니다.
- 朴贊國 委員; 그 다음에 89건이 대관승인이 되었던 말씀이요? 그 승인내용하고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演部長 張基豐;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은 總務部長님이 하십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외부저명인사로 하여금 위원장을 모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있고, 전반기에 한 번 있고 그렇습니까? 1년에 두 번이죠?

○公演部長 張基豐; 네,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1년에 두 번인데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때그때 심사위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말씀 아십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네, 맞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조례는 지금 현재 13인 이내로 구성 되게 되어 있습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네.

○朴贊國 委員; 그런데 아홉 사람으로 했다가, 인원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그때그때 상황별로 틀리지만 보통 10인 내지 13인으로 구성합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館長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여기 심사위원회에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안 들어가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館長은 아무 권한이 없네요?

○公演部長 張基豐;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朴贊國 委員; 내가 지금 현재 조례를 안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조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간관계상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館長은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이 필요가 없네?

○公演部長 張基豐; 아무래도 행정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朴贊國 委員; 그렇다면 민주방식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장이 구성되고 심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을 돌출해 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네,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런데 최종결정은 館長이 한다, 이것은 두 번 결정을 내린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위원들한테 답 변 잘못하면 말꼬리를 물리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公演部長 張基豐; 알겠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 문제는 자료제출로 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97차 IPU서울총회 개최식 대비해서 대강당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中央部處에서 나와서 수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수리를 한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 보수한다거

나 수리를 하면 예산이 당연히 사용이 될 거다 이 말씀이  
에요. 현재 IPU총회는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市  
예산에서 얼마를 사용했고, 中央部處에서 보조를 얼마 받았으  
면 얼마를 받았다 하는 내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  
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인사드리겠습니다. 施設管理部長 韓  
相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IPU  
서울총회를 世宗文化會館에서 개최식을 갖겠다 하는 것이  
금년 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엔 여기 보  
수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닥카펫트를 1층, 2층만 교체를 했는데 이  
바닥카펫트는 83년도 IPU총회때 교체를 하고 한번도 안했  
습니다. 그래서 14년 이상 쓰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또 여기  
에 오시는 분들은 135개국, 저희 나라의 위원은 12명입니다.

○朴贊國 委員; IPU총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은 아니까  
그런 내용은 할 것 없고,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어떻게 수  
리를 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묻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층 카  
펫트 교체를 약 6,500여 만원을 들여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6,500만원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서울시 예산입니다.

○朴贊國 委員; 이것이 世宗文化會館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저희가 확보한 시설보수비를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世宗文化會館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카페트를 보수해서 깔끔한 행사장으로 치루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잘못된 거죠. 館長,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IPU총회를 위한 예산은 받아오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용해서 쓴 거죠?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전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확보된.....

○朴贊國 委員;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시설을 보수할 것을 먼저 여기에 쓴 것 아닙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급하다 보니까.....

○朴贊國 委員; 아니, 여러 얘기할 것 없어요. IPU총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영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예산 받았습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시다.

○朴贊國 委員;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써버린 거예요. 시설보수를 금년도 어디 어디를 보수하고 하는 시설보수비 예산을 받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시설유지에 필요한 보수비는 실질적으로 건축평면에 의해서 內務部에서 선정해준 단가기준

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보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예산은 나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확보는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이 계획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IPU총회에 따른 예산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닥카페트 전면교체 같은 것은 인테리어비용이거든요. 인테리어회사에서 나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즉, 이것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깔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朴贊國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항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카페트를 사다 까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즉, 말해서 이 내용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올 때, 영달을 받을 적에 시설보수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을 받아왔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朴贊國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을 무턱대고 주느냐, 전년도에 조목조목 해서 企劃管理室에 올렸을 것 아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영달 됐을 것 아십니까? 거기에 IPU총회의 시설보수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안 들어갔죠?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안 들어갔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당신네들이 전용해서 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뭐뭐 해

서 시설보수비를 분명히 企劃管理室에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랬죠? 1년에 우리가 쓰는 예산이 뭐뭐뭐 해서 조목조목 해서 시설보수비를 영달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IPU 총회에서 들어간 예산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전용해서 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世宗文化會館에 시설보수할 데가 없습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예산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아직까지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아직까지 예산은 있다?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금년도 예산 중에서.....

○朴贊國 委員; 그러면 6,500만원을 썼는데 6,5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IPU총회를 위해서 이것을 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재 과다지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따올 적에 IPU총회는 생각을 안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위원님. 이 예산을 쓰기 전에 방침을 올렸을 적에 우선은 돈을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시급하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확보된 시설보수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國會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든가, 만약에 그것을 企劃管理室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가 시설보수비가 아주 시급한 것이 발생된다 한다면 그때는 追更에라도 올려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침 하에서 썼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국회에다, IPU총회 주관부서가 大韓民國 국회기 때문에 국회에 예산요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文化局 소관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朴贊國 委員; 의사표시를 했는데 답변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요청은 했는데 회신은 못 받았습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그것은 企劃管理室에서 국회하고 서로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朴贊國 委員;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서울市長 승인 하에 이 공사가 들어간 것입니까, 市長 결재 하에 들어간 것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副市長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朴贊國 委員; 이 전결사항이 副市長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소액이다 보니까요.

○朴贊國 委員; 소액이다 보니까 전결이 副市長입니까?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처음에 실시했던 副市長 전결까지 나 있는 공문서 있죠?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朴贊國 委員; 그 공문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네, 알겠습니다.

○朴贊國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잘못된 것만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행사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것은 자치제입니다.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면



는 논리는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대회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이 착안해 내서 국회 쪽에다 요구를 했었어야지 그러기 전에 우선 국회에서 얘기를 이 대회는 빨리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빨리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한 논리는 여기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라면 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전용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용을 해준다든가 하는 내용에 분명한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施設管理部長 韓相烈; 알겠습니다.

○朴贊國 委員;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시장 전면보수공사라든가, 공조덕트 청소 및 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던 말씀이에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朴贊國 委員;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여기까지 알까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해 주세요.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네.

○朴贊國 委員; 이상입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수고하셨습니다.

徐在浣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世宗文化會館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본위원은 상반기에도 文化教育 常任委員으로서 世宗文化會館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世宗文化會館에 池館長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와 같이 작년에도 단원들의 일부 물의가 있어서 언론에도 오르락내리락한 과오가 있고, 이와 같이 世宗 文化會館에 우리 서울市の 문화 또 모든 예술단체들이 집합되어 있는데 館長이 이렇게 수시로 어느 기관하고 비교해서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池館長님이 몇 개월이나 근무를 할지 우선 염려스럽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行政事務監査를 통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속해 있는 長이 자주 바뀌고 그럼으로써 내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 이 인사정책부터 앞으로 世宗文化會館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제자리를 잡아나가지 인사정책부터 안 되어 있는데 世宗文化會館의 모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수시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館長님 잘 모르실테니까 주무부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公演部長 張基豐;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이것은 해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서울에서도 했고, 또 지방에 돌아가면서 전국에 한 17개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

가고,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여수시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초청자측에서 전액 부담해서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徐在浣 委員; 앞서서도 朴贊國 同僚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너무 간략하게 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자세하게 했으면 이런 것은 질문할 것이 못되는데.....

○公演部長 張基豐; 참고적으로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120명인데 이번 출연인원은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지금 4월 30일 현재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1/4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관람인원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비교해서 1/4분기 동안에 관람인원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증가했습니다.

○徐在浣 委員; 몇 % 정도 증가됐다고 생각합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 는 못 내 봤는데 많이 증가했습니다.

○徐在浣 委員; 작년에도 우리가 行政事務監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인원이 많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관람인원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서울市民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결국 관람인원의 증가는 홍보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徐在浣 委員;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횟수 계획이, 물론 극단은 5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계획은 5월, 6월 중에 몇 회나 실시되는 지, 아직 4월 30일 현재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公演部長 張基豊; 주로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타 단체공연들 주로 나가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5월은 어린이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인데 5월에 한두 번은 공연을 넣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절에 맞고, 또 행사도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시기적으로 맞는 때 소년소녀합창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公演部長 張基豊;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31일 소년소녀합창단공연이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너무 늦지 않나 싶는데 내년에는 어린이날에 맞춰서 같이 활동을 청소년합창단들이 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公演部長 張基豊; 사실은 5월 5일로 처음에 날짜를 잡았었는데 마침 어린이정글북 때문에, 그것이 5월 5일에 끝났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그 다음에 해외공연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획된 해외공연이 아닌 공연을 다른 곳의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해외공연 10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년에 어디어디 갑니까?

○公演部長 張基豊;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 번을 잡았는데 북경하고, 자카르타하고, 하노이하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외예산이 1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경하고 자카르타는 지금 현재 대충 일자가 나와서 자카르타는 6월경에, 그리고 북경공연은 작년에 북경교향악단이 저희 韓國에 왔습니다. 그래서 답방형식으로 10월말경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이 8월중에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6군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도로 예산 외에 나가는 것은 전액 초청자 부담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작년 行政事務監査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서울市에 소속되어 있는 공연단체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존심도 가지고 있는데 해외초청을 받은 내 용을 보면 너무 예우면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여기에서 해외초청공연을 갈 때는 예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公演部長 張基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초청장소라든 가, 또 사전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 시립단체들이 구체적으로 나갈 때는 사전홍보라든가, 또 공연장다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공연시 특별히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다음은 李載震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 해외공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공연에 북경하고 자카르타, 일본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확실한 일정이나 무슨 계획이 없겠네요?

○公演部長 張基豐; 지금 무용단이 6월에 중남미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外務部 산하 국제문화협회 쪽에서 전액 예산을 대는 것으로 해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11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중남미를 갔다왔는데, 특별히 브라질의 領事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래하고, 또 해외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世宗 文化會館의 시립악단이 뭔가 교류를 해서 와 주었으면 참 보람이 있겠다. 우리 韓國이 물론 88올림픽을 기해서 알려졌지만 그쪽 중남미는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월드컵축구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韓國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와서 예술의 무엇을 우리 韓國이 보여주었으면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한국외교를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것을 성사시켜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해요. 사실 11명이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더 확장해서 길을 한번 터서 어떻게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公演部長 張基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領事館에서 그것을 간곡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지. 우리 韓國을

알리고, 또 과연 韓國이 이런 예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아직도 빈약하게만 본다 이거예요, 올림픽을 했어도.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더 빈약하지만, 사실 우리 나라에서 볼 때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다 후퇴한 나라로 보지만 실지 가서 보면 우리 나라 사정과 거기 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고 발전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교류가 잘 되면 우리 국익에도 상당한 유익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公演部長 張基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1억원 해외공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북경 가는데 한 5,700만원, 자카르타 가는데 한 2,7·800만원 해서 거의 두 군데 가는데.....

○李載震 委員; 예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얻어서, 그쪽은 항상 여름이니까 여기 겨울에 공연을 나가도 활발히 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公演部長 張基豐;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다음은 林鍾化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化 委員; 林鍾化 委員입니다.

2시에 文化局 소관 업무와 世宗文化會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文化教育 소속에 文化局과 世宗文化會館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모순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大韓民國이 창조적으로 나가려면 문화예술

이 선진화되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文化局의 전 예산이 600억 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市 예산이 10조인데 1도 안돼요, 1해야 1,000억원인데. 그런데 世宗文化會館이 약 180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수입은 32억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서울市에서 世宗文化會館을 갖고 있기 때문에 KBS홀이라든지 또는 예술의 전당에 못지 않게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뭔가 서비스 차원보다는 상당히 비중 있는 世宗文化會館이 되어야 되는데 공연의 질 같은 것을 보면 시립악단 이런 데에서 소소한 것은 많이 하지만 협찬을 해야만 인기 있는 프로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애석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世宗文化會館의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지자체된 우리 趙淳 市長께서 인식을 달리해서 世宗文化會館의 館長에 대해서 직위를 격상해서라도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식있는 사람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世宗文化會館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약 180억원이라고 그러지만 예술의 전당에 비하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9개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 보면 보수문제라든지, 또는 복리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館長이 오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



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世宗文化會長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2년 동안 우리가 文化教育委 소속에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의 정신이 살아나려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이 되어야만 계몽이 되고 국민의 정신이 살아나는데 그런 데는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의식구조가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館長께서 副區廳長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물론 1년 계실지, 6개월 계실지 모르지만 와 있는 현실에서는 과감하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世宗文化會館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市長 님이나 副市長 면담을 했을 때 이런 이런 것은 탈피해서 고쳐야겠다는 것을 직언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世宗文化會館이 발전되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했다가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일했을 때 그 평가가 남는 것 아니냐, 사람은 이름 석자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타령, 물론 187억원이니까 수입에 비해서는 많이 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世宗文化會館을 가보고 예술의 전당을 가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빈약하고 이

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館長으로 왔기 때문에 館長 책임 하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그것을 탈피해서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실 말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林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시의적절하고, 제가 부임한지 일천한 이 시점에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소신껏 확신을 갖고 과감한 진언도 드리고, 보고도 드려서 소신껏 일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 생각에 世宗文化會館에 대해 하나만 林委員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전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시민들이 싸게라도, 또 서민적으로라도 우리 世宗文化會館을 시민회관으로 생각하고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처럼 서민과 뒤떨어진 것보다는 좀더 시민들과 같이, 지금 점심시간 때라든지 오후 때 보면 굉장히 시민들이 저희 世宗文化會館을 사랑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會館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林鍾化 委員,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林鍾化 委員; 네.

○委員長代理 張精一;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 보면 인력이 796명입니다. 예술 단원이 유급이 360명이고 무급이 26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무급이라는 것이 보조연기자,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 보십시오.

○世宗文化會館長 池健弘; 구체적인 부분은 部長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급입니다.

○公演部長 張基豐; 公演部長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해 보세요.

○公演部長 張基豐; 무급단원이라는 것은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120명하고, 청소년교향악단 120명, 그리고 오페라단원 20명이 있습니다. 오페라단은 그때 그때 작품마다 우리가 착출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현재 청소년교향악단은 주로 대학생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 120명 240명은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 단원으로 하여금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240명은 일단 世宗文化會館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단원은 전혀.....

○委員長代理 張精一; 그러면 연습을 할 때 우리 會館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公演部長 張基豐; 제공해 주는 것은 1회 나오면 5,000원 정도 급식비가 나오고, 청소년교향악단에는 연간 한 100만원

정도로 해서 교통비조로,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100만원 정도 장학금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상근이 아닌데 우리 會館의 인력으로 꼭 잡아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公演部長 張基豐; 왜 그러냐 하면 소위 화음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해서 쓰려면 아무래도 모으는데 힘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상근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張精一; 좋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바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世宗文化會館은 세입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 전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누차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세입은 항상 세출의 20%를 넘지 못합니다. 평균 15%에서 17.8%선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한 것을 물었을 때 世宗文化會館側은 이것은 예술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출면이나 또는 세입 중에서 보다 좀더 현실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러한 자체수입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거에 내려오던 답습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선을 하면서 文化教育을 전대에도 2년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館長 이하 직원들이 근무를 상당히 개선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자치시대에 맞게 개선

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館長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보통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會館 앞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이라든가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고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會館 밖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은 17%만 자체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년 보고를 보면 83이상의 예산은 世宗文化 會館에 한 번도, 1년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世宗文化 會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스케줄이나 아니면 공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오신 館長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館長이나 서울市長의 그러한 전권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4월이나 아니면 7·8월 인사 때 보면 기술직과 행정직, 또는 단원의 채용시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새로 오신 館長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책임을 맡아서 會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館長께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직·행정직 또는 예술단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몇 가지 부분에 館長께서는 특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世宗文化會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36分 散會)

---

○出席委員

劉大運 許光泰 洪樂元 張精一  
盧永奭 徐在浣 梁東錡 李達源  
李英順 李載震 林鍾化 鄭韓植  
崔昌奎 朴贊國 魚潤慶 孫馥

○出席公務員

文化局

局長 李相鎭

文化財課長 延益欽

世宗文化會館

館長 池健弘

公演部長 張基豊

施設管理部長 韓相烈